

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Calvin은 성교가 가져다 주는 쾌락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욕망에 이르게 하는 지나친 열정은 부부간의 성교에서도 죄가 된다는 보편적인 신념은 가지고 있었다.⁷⁰⁾

Luther나 Calvin은 쾌락 또는 부부간의 애정을 중진시키는 것이 성교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았다. 청교도들은 성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필요를 요구하고, 동거를 역설하며, 쾌락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할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곧, Milton은 부부간의 성교의 본질적인 잊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교도의 비난자도 옹호자도 어느 누구도 완전히 옳지는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 순수한 성경적 교훈을 되찾고자 노력했지만 문화적, 지적인 결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청교도의 성에 대한 사고는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반면, 우리는 청교도의 사고에서 협사리 결함들을 찾아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는 판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중세의 최악의 오류를 공격했으며, 종교개혁과 영국의 초기 종교개혁에서 성욕에 관한 성경적 사고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청교도들은 결혼과 성욕에 대한 기독교 사고에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 달성을 실패했으며, 만일 중대된 것이 있다면 기독교 공동체내에서 성경적인 교훈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인 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번역

영국 퓨리턴 신학에 있어서 보증(확신) 이론*

(The Logic of Assurance in English Puritan Theology)

저자 : R.M. Hawkes**

번역 : 황동현***

영국의 청교도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신학, 예정, 개혁교회의식을 강조하는 신학적 운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 대한 주권의 확립, 왕정의회정치, 아니면 독단적 특권을 지닌 법정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원리,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의 주장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그 핵심인가?

몇몇 현대연구들은 세번째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곧 퓨리터니즘 종의 필수요소인 경건, 회심의 강조, 근원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난 종교심의 강조이다.

참으로 이 세 영역에 있어서의 퓨리턴의 업적을 탐구하는 끝없이 지속된 작업은 퓨리턴시대가 사라진 이후의 약300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친 만연한 영향과 거대한 독창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퓨리턴인들은 그같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학문연구는 그들에게 단편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하나의 작업도 퓨리터니즘의 미로를 다 통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을 퓨리턴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존 오웬(John Owen)은 퓨리턴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신학적 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존 번연(John Bunyan)이 퓨리턴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경건적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2th, 1990. 247~261에서 완역한 것임.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3년

⁷⁰⁾Calvin, *Institutes* 2.8.44 ; 3.10.2.

운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위의 세 사람을 하나의 운동으로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다. 청교도 연구에 있어 불일치로 가는 이런 경향을 역습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친 다양한 분야 뿐 아니라, 두드러진 노력을 살피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퓨리턴인들의 접근을 함께 묶는 논리적인 일관성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연구는 실—채집(thread-pecking)¹⁾으로 의도된다. 영국 청교도는 기간으로는 위클리프에서 웨슬레까지를 결치고, 넓이로는 코크(coke)에서 팍스(Fox)까지 걸친다고 할 수 있다.

청교도주의의 핵심을 정의하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논리의 경향, 사고 방식을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폭넓게 다양한 퓨리턴 작가에 있어 정신적인 평행을 초래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정의도 모든 청교도주의를 다 커버할 수 없다해도 최소한의 공통성을 지닌 다양한 특징적인 논리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청교도 신학에서 확신원리는 중요성이 있다. 청교도주의의 목적에 관한 묘사를 외부구조를 개혁함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개혁하려는 이중의 목적을 포함 해야만 한다. 교회의 외부개혁이 성경의 청사진에 따라 철저한 재구조화로 구성된 것처럼, 퓨리턴의 순례자의 영혼의 내적개혁도 하나님의 자아계시를 따른 확신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교도의 널리 알려진 cocksuneness는 그들 적대자들에게 분노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퓨리턴 신학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제공하셨고, 그것은 그에 대한 순종과 확신있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었다. 전에 하나님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을 늦추거나, 불확실성을 변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것은 죄였다. 그러므로 퓨리턴 정신의 특성을 정의하고자는 연수에서 확신하는 잠재적으로 풍부한 광맥이다.

퓨리턴 원리의 확신논리의 사용은 자주 신학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관점으로 간주되어 왔다²⁾. 이에 대한 이유는 퓨리턴인의 마음에서 확신원리(교리)가 심리학이 관찰할 수 있는 이율배반(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¹⁾Some examples of such thematic works on the Puritans which seem to have a similar logical aim are these: John Eusden, Puritans, Lawyers, and Politics (New Haven: Yale, 1958); Ernest Kevan, The Grace of Law (Grand Rapids: Baker, 1979); Leo Solt, "Anti-Intellectualism in the Puritan Revolution," CH 25 (1956) 306-16.

²⁾Notably, Geoffrey Nuttall, The Holy Spirit in Puritan Faith and Experience (Oxford: Basil Blackwell, 1946); Norman Pettit, The Heart Prepared: Grace and Conversion in Puritan Spiritual Life (New Haven: Yale, 1966); and for

신학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 어려움이 이리하여 표명된다: “만약 내가 신자라면 나는 좋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신자임을 밝히기 위해 내가 좋은 일은 한다면 나는 신자가 아니고, 가장 악랄한 위선자다”

퓨리턴 신학이 종종 이들 주제를—즉,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의지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충족성에 순종할 필요—제시하기 때문에 때로 그것은 퓨리턴인이 그의 삶을 감상적이고, 자기 반성적인 범주에서 형식에 사로 잡혀있다.³⁾ 이 견해는 정확하게 선행과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을 의식하나 그에게 함정은 아니다. 대조적으로 그것은 퓨리턴 신학이 확신교리에서 예상되는 퓨리턴 신학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이었다.

청교도의 설교의 표준은 이러한 두개의 첨예화된 접근이다. 즉, 그 자신의 선행에 기초한 확신을 부르짖는 법정주의자(legalist)의 확신을 뒤엎는 것과, 단지 교리에 의존한 그의 확신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하는 “신앙고백자(professor)”를 보여주는 것이다.⁴⁾

이들 두 가지 잘못을 정적이고, 선형적인 논리에 의존한다.

퓨리턴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하고, 진보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에서 확립되는 확신을 제공했다.

믿음과 선행은 긴장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기적인 크리스찬의 삶에 조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교도 정신의 하나인 중심적인 양상이다. 퓨리턴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선민사이의 발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시대와 경험을 초월한 신성한 가르침과 인간의 학문에 관한 역동적인 관계를 다룬다.

a more theological study of assurance, Dewey D. Wallace, Puritans and Predestination: Grace in English Protestant Theology 1525-169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82).

³⁾For instance, R.T. Kendall 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Thus ‘free’ Justification has a price after all before it can be enjoyed: our perseverance in repentance and good work”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206). This depiction of Puritan theology can be traced back to the Cavaliers, but it is Max Weber, in modern times, who is generally credited with the idea that the English Puritans followed a precise obedience in order to prove their election. For a sophisticated objection to this view, see Jerald C Brauer, “Types of Puritan Piety,” CH 56 (1987) 39-58.

⁴⁾A typical example of this approach may be found in the notorious E.F. [isher]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1945; repr. Glasgow: David Bryce, 1902).

I. 신앙과 확신

청교도는 그의 확신을 확립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삶을 정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는 고정되고 신자의 지식과 순종은 그 의지에 종속하는데, 이것은 그의 확신의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그의 유약하고 동요되는 인간성에 거한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있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주장하나 그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말한다. 존 번연의 영적 자서전에서 이것은 그가 해결한 요점이다. 이것은 나와 함께 결속된 것이다. 어떻게 당신은 선택되었다고 말할수 있는가?⁵⁾ 윌리암 거스리(W. Guthrie)는 그의 청교도 정신에서 이러한 감성(sentiment)을 반향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야할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한 것을 확신하고, 그런 후 적절히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이다⁶⁾

퓨리턴에게서 신자의 존재와 하나님 앞의 상태에 있어서 실제적 변화의 확신은 그에게 안식과 기쁨을 준다. 엠마뉴엘 대학의 많은 Non-conformist의 한 사람이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는 그와같이 확신은 구원 그 자체에 따라오는 목표로서의 확신임을 말한다. 은혜상태에 있는 존재는 사람을 이후천국으로 인도하나, 이상태에서 그 자신을 보는 것은 그를 이곳 하늘과 저곳 하늘 둘다에 이끌어 줄 것이다.⁷⁾

이러한 위대한 목표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죄성의 혼란때 믿지않는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을 믿을지도 모르거나, 또는 믿는 사람도 그가 믿지않는 것을 믿을지도 모른다; "내가 믿는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브룩스(Brooks)는 설명한다.⁸⁾

거스리(W. Guthrie)는 이러한 구별을 인정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상태는 종종 평화가 있을 때도 있으나, 반면 그의 양심은 그 반대를 위협한다.⁹⁾ 이리하여 복음의 진리의 확신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구원인 믿음이나, 사람이 믿음을 가지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와같은 확신은 신앙의 삶을 통해 도달되어지기 때문이다. 거스리(Guthrie)는 2가지

⁵⁾John Bunyan,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Oxford: Clarendon 1962) 21.

⁶⁾William Guthrie, *The Christian's Great Interest*(1658; repr.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9) 193.

⁷⁾Thomas Brooks, *Heaven on Earth*(1654; repr.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1) 14.

⁸⁾Ibid., 14.

⁹⁾Guthrie, *Interest*, 110.

종류의 확신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내가 선택되어졌음을 믿는거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거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거나, 그와같은 종류가 아니다.

; 이것들은 참으로 매우 어렵고, 처음에 얻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마음과 의지의 활동 내지는 작업이다. ; 즉, 이해되는 진리에 관한 가정된 sunday thrings를 가지는 것이다"¹⁰⁾

청교도인들은 단순한 구원의 믿음과 발전된 확신을 구별하나 그들은 복음진리에 있어서의 객관적 진리가 믿음에 필요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청교도인들은 스스로를 확신유형은 모든 구원 믿음의 부분이라는 개신교 원리를 담은 사람으로 여긴다. 가장 저명한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John Owen)은 개신교의 기본 메세지를 확신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즉, "구원의 믿음의 핵심에 속한 신앙과 확신"¹¹⁾을 주장한다.

그는 초기개혁자들은 때로 신앙의 요소를 그것의 최고행위로 대체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삶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초로 필요한 신앙과 혼동한다.¹²⁾ 초기개혁가들은 오웬(Owen)이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조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모든 신실하고 참된 신자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의 죄의 용서—비록 그들이 성경은 이러한 책임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요구하고 있지만—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들을 결코 읽은 적이 없다."¹³⁾

동일하게 우리는 한편으로 토마스 브룩스(Thomas Brooks)가 또한 확신은 어느정도 신앙의 필요한 부분임을 발견하나, 확신이 기독인의 요소(Essense)는 아님을 말한다.¹⁴⁾ ; 신앙(Faith)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확신에로 나아가고 발전될 것이다.¹⁵⁾ 청교도인들은 완전한 확신을 최초의 신앙과 구별하는 반면에 그들은 그 둘 사이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확신은 신앙의 첫 행위에 있어서 확신을 함축하고 자라가기 때문이다. 토마스 굴윈(Thomas Goodwin)은 옥스포드의 그의 동료인 존 오웬(John Owen)보다 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¹⁰⁾Ibid., 63.

¹¹⁾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24 vols.; London and Edinburgh: Johnstone & Hunter, 1850-55) 9, 588.

¹²⁾Ibid. 5.84.

¹³⁾Ibid., 85.

¹⁴⁾Brooks, *Heaven*, 15.

¹⁵⁾Ibid., 21.

는 신앙과 확신 사이의 연속성을 기술한다. “기독인의 마음에는 몇 비밀스런 힌트나 그에 대한 자비의 속삭임이 적혀있다.”

나는 그것이 확신으로 자란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의심을 quell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자체로 그것에 관해 명상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을 주기에 충분하며 결코 그를 떠날 수 없다.¹⁶⁾

그들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청교도인들은 비록 진전한 원리를 지니고 양육되었을 지라도 살아있는 종교에 위탁하는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들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위대하고, 가장 가치있는 기여의 하나는 확신에 관한 폭넓은 분석과 taxonomy이다. 항상, 그들은 개신교 신학의 기반을 존재케 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한다. 개혁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에 관해 설교하는 반면에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원을 확신 있게 되느냐를 설명했다.

개인확신에 대한 퓨리턴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는 어떤자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들의 객관적 확신을 성장시킨다. 존 오웬(John Owen)은 결론짓기를 “이러한 확신은 그들에게 특이한 어떤것으로부터 야기되지도, 취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한다.”¹⁷⁾

그는 어디서나 말하기를 “그것은 참으로 우리 확신의 기초가 되는 우리 속의 성령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는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다…이 것은 확신에 관한 최대의 증거이다.”¹⁸⁾ 아더덴트(Arthun Dent)는 철저한 퓨리턴책인 “A Plaine Mans Path Way”的 저자인데, 그는 크리스챤의 주관적 확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객관적 확신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언급한다.; 이러한 설득의 기초는 우리자신 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만 있다.¹⁹⁾

청교도확신의 근원적 본질은 신자의 삶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여 역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브룩스(Brooks)는 소박한 metaphor로서 이 사역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고정해보라. 그러면 확신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

¹⁶⁾ Thomas Goodwin, *The Works of Thomas Goodwin*, D.D.(12 vols. ; Edinburgh: James Nichol, 1861-66)8,271.

¹⁷⁾ Owen, *Works* 3,367.

¹⁸⁾ Ibid. 4,405.

¹⁹⁾ Arthur Dent, *The Plaine Mans Path-Way to heaven*(London : J.Legatt and E Bishop, 1617)244.

다.²⁰⁾ 참으로 존 오웬(John Owen)은 한 사람자신의 작업(일) 내에서 위로를 추구하는데 치중하는 그릇된 확신을 쫓는것을 대항하는데 그의 관심을 두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기 원할때 나는 내 자신의 거룩함을 아는데 관심을 적게 둘 것이다. 거룩케 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을 아는 것은 때로 유혹이다.²¹⁾

청교도신학에서 확신은 mentoriorum 사역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은혜를 발견하는 크리스챤에 의한 방법이며, 주관적인 선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식을 간직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2. 신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면으로서의 확신의 증거

청교도인들은 기독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신앙의 재위치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사역으로서 조사하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보기를 촉구한다. 참으로 그들이 치료하기를 갈망하는 영혼은 특히 확신을 추구하면서 법정적 순종에 굽복하는 그들이다. 오웬(Owen) 밑에서 일하는 육스포드의 동료인 월터 마야샬(Waller Marshall)은 확신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이 방법을 주었다.; 당신의 마음이 단지 즉각적인 거룩의 실천에도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같은 원칙들이 실제원리들에 의해 믿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라.²²⁾

그들의 신중한 순종에로의 강조로 인해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청교도(Puritans)와 정확주의(Precisions)로 불린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자식을 알아 실제적으로 구원을 못 주게하는 죽은 향수로 간주한 기독교를 취급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접근을 하는 많은 아일랜드인들을 양육했다. 비록 그들이 오로지 인간사역에서 전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에서의 믿음의 상황내에서 되어지는 계속되고 순환적인 노력과 자기평가를 위한 필요를 방해했다. 우리는 신학(Theologus)이 자기만족의 Antilegon을 야기하려고 시도한 아더덴트(Arthur Dent)의 “Plaine Mans Path—Way”로부터 이러한 청교도의 주장을 좋게 여긴다.

Theologus :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선민의 하나님을 압니까?

Antilegon : 저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돋독한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

²⁰⁾ Brooks, *Heaven*, 307.

²¹⁾ Owen, *Works* 6,600.

²²⁾ Walter Marshall, *The Gospel-Mystery of Sanctification*(1962 ; repr. London: Oliphants, 1954)173.

면 나는 그에 대한 나의 모든 신뢰를 두며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 기도로 그를 섬겼습니다.

Theologus: 진실로 이제 당신은 숲을 헤냅니다. 어떻게 당신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특히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암니까?

Antilegon: 당신이 만약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이끌어내어 방황하게 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단지 그에 의해서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Theologus: 당신은 결코 그 가까이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²³⁾
(Theologus)

Antilegon은 그가 “마치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Theologus에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그 자신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질문 받았다. Theologus는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Antilegon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의 새 생명력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

Antilegon은 그가 Theologus가 구원을 사소한 것으로 간소시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외에는 어떤 선(good)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주장(change)한다.²⁴⁾ 그러나 청교도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원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교제를 계속하며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그의 선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의 발전적인 교제를 보여줌으로써 일상적인 삶을 성숙시키고 있다.

청교도인에게 있어 삶에서 그 자체를 역동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것인데, 그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기만이며 죽음이었다. 모든 사람의 눈을 그의 진실한 상태로 눈뜨게 하려는 그들의 열정은 청교도인들에게 있어 의로운 사역을 전파하는 사랑으로서, 그리고 그 자신을 그같은 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특정짓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청교도주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밀로서 페지밀러(Perrh Mille)는 그가 청교도 신학이 인간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도덕적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책임자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그가 주장한 4세기를 불평한다.²⁵⁾ 밀러(Miller)는 비논리적인 것으로서 청교도 논리를 표현한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왜 청교도

²³⁾Dent, Path-Way, 253.

²⁴⁾Ibid., 273.

²⁵⁾Perry Miller, The New England Mina : The Seventeenth Century(Cambridge: Harvard, 1954)391.

는 순종으로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그같은 청교도의 목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는가?

퓨리턴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고무하며, 믿음을 평가하고, 사역하며 신실한 감사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의 사역을 인지한다. 사역은 믿음생활의 나선형 성장(spiral)내에 포함된다. 만약 믿음이 단지 한 예의 정적인 결정으로서 고려된다면 계속적인 순종을 위한 어떤 적정장소도 없다. 퓨리턴인들은 그들의 독자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직접적인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거나 또는 떠나서 그들의 삶의 현재의 방향을 발견하도록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퓨리턴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없는 내적인 성찰 추구는 소망도 안식도 없음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청중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존재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계속적인 순종 회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속에 이런 확신개념을 갖고 존오웬(J.Owen)은 역동적인 순종을 제안한다.

일관성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가장 큰 증거이다.²⁶⁾ J. Flavel은 이러한 자아성찰 방법을 확신한다; “신자 속에 성령의 내주를 발견하는 그같은 일은 그들의 책임의 문제거나, 행위의 본질, 가장 비밀스런 생물, 거룩한 목적, 그것들을 성취하고 일하는 영적인 방식과 같은 것은 아니다.”²⁷⁾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적극적인 은혜로 계시하는 한도 내에서 시간을 초월한 기독인의 삶의 유형이다. 이런 이유로 존 프레스톤(J.Preston)은 후기 퓨리턴에게 그의 중생의 확신에 도달한 사람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에 처해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뿌리와 그이 성향의 틀로부터 한사랑의 계속된 과정이 진행된다.²⁸⁾

기독인의 삶의 요소는 혼란스러울지 모르나, 폐단으로서 간주될 때 하나님의 손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토마스 굳원(Thomas Goodwin)은 하나님의 성령은 성스러운 빛과 권위로 그의 밀씀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 자신의 사역을 하심을 관찰한다.²⁹⁾ 그것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각되는 크리스챤 개인적 행위거나 성경의 편지가 아니고 개개인의 사전을 무오한 계시로 결합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미이다; 존 오웬(J. Owen)은 우리의 구원, 성화의 모든 신비,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신비에

²⁶⁾Owen, Works 21(=Hebrews 4)152.

²⁷⁾John Flavel, The Works of John Flavel(6 vols; London : Banner of Truth 1968)2, 334.

²⁸⁾John Preston, The New Covenant or The Saints Portion(London, 1630)210-11

²⁹⁾Goodwin, Works 8, 358.

있어 영적인 눈으로 보게되는 지혜와 의로움의 증거가 있음을 주장한다.³⁰⁾

3. 확신에서의 이성과 성령

퓨리턴인이 확신의 개념을 역동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란 개념으로 묘사한 것은 옳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들내에서 확신의 능력을 위치시키고자 시도할 때 어려움이 야기된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신자의 관찰은 주로 (성)령적인 본질인가? 아니면 그것은 이성적인 현상인가? 확신 논리는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인가?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확신은 syllogismus mystics를 수단으로 도달되는 것인가?³¹⁾

다양한 주장들이 어떻게 퓨리턴인들이 초자연에 대한 강조에서 자연적인 확신교리를 변화시켰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퓨리턴 신학자들이 확신과정은 이성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로 간주함으로 혼란이 야기된다. 그것은 자연적일 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작동이다. 이러한 놀라운 예는 신앙을 순수한 전문화로 취급하고, 이성적 기초 하에서의 확신을 위한 적절한 목적으로서의 사역을 관찰한 신자들에 관한 Guthrie의 가르침이다.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경외하여왔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³²⁾

거스리(Guthrie)는 성령과 이성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이성은 올바른 평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두번째 작용은 두번째 가설하에 놓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이고 거기서 그들은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하게 된다.³³⁾ Richard Sibbes, 이 사람은 퓨리턴 혁명 전에 죽었는데 확신에 관한 동일한 이중양상을 발견했다; 나는 성령이 내 영혼을 운반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영역에 관한 가장 친숙한 지식의 방법은 결과로부터 원

³⁰⁾Owen, Works 19(=Hebrews 2)501.

³¹⁾For morel on this topic, see G.C.Berkouwer, Divine Election(Grand Rapids: Eerdmans, 1960)285-305.

³²⁾Guthrie, Interest, 105-6.

³³⁾Ibid., 107.

인을 모집하는 것이다.³⁴⁾

그들이 인간이 성 내에서의 성령의 작용을 말하기 때문에 청교도인을 반지 성주와 반이성주의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리하여 우리는 Thomas Brooks가 “이성의 팔은 너무 짧아서 확신의 보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안다”³⁵⁾ 그러나 J. Preston은 어떤 인간이 지닌 은혜는 없으나 이해를 통해 그것이 표현된다고 주장한다.³⁶⁾ 여기에 갈등은 없다. 오히려 퓨리턴인들은 비록 나약하나, 경험을 통해 이성을 시대를 초월한 성령이 확신있는 믿음을 확립함으로 기꺼운 도구로서 간주한다.

J.Owen은 이성이 어떻게 확신의 발전에 있어 성령에 종속, 작용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그 자체의 양심의 힘에 의해 영혼은 하나님의 법앞에 가져다 진다.”

인간은 거기서 그의 간구를 내놓는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관심을 제공해주는 모든 것인 그의 모든 증거를 만들어 낸다. 간구와 호소 도중에, 보혜사가 와서 약속이나 다른 것으로 위로 깃든 설득을 지닌 마음을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한다. 그것은 그의 간구가 선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논란이 있으나 그 원인은 수년 동안 있어 오고 있는 것이다.³⁷⁾

Owen은 경고하기를 확신이란 확립된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투쟁은 확신을 지닌 성장해 가는 삶자체 내에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안정감을 가졌으나 확신은 아니다. 죄와 불신앙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속에 거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³⁸⁾

크리스천의 이성은 죄가 거함으로 약화되어서 퓨리턴 신학에 의하면 의심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이성이 단지 확신의 발달에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화를 그의 선민에 대한 확실성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파괴하지 않는다.

Thomas Goodwin은 은혜의 영역에 있는 인간존재의 특별한 설득은 인간이 가장 진실하게 믿고 있을 때 의심에 대항하여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지성(상식)에 있다.³⁹⁾ 이것은 퓨리턴에게 있어 믿음과 잘 조화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할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³⁴⁾Richard Sibbes, The Works of Richard Sibbes(7 vols., 1862-64; repr Edinburgh : Banner of Truth, 1973)1,138.

³⁵⁾Brooks, Heaven, 109.

³⁶⁾Preston, Covenant, 451.

³⁷⁾Owen, Works 2, 241.

³⁸⁾Ibid. 6, 593.

³⁹⁾Goodwin, Works, vol. 8 : Justifying Faith, 342.

신뢰하거나 연합하는 우리자신의 모습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Owen은 이러한 위로를 제시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저버리도록 하는데 가치있다고 결론내릴때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 불신앙의 일과는 거리가 멀다.”⁴⁰⁾ 모든 인간의 능력은 그들의 실제 행함으로 정의된다. 한 면에서 의심은 해로운 것이 퓨리턴에게 있어 이것은 축복으로서 섭기게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의심은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도록 하고 그것은 해함과 경험을 통하여 확신은 확립됨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때로 cantankerous목사인 Richand Baxter는 훈계하기를 당신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⁴¹⁾ Thomas Goodwin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동일한 생각을 표현한다(Nihrl Tam centum guam quod ex bubio ceitum).⁴²⁾

퓨리턴에게 있어 확신의 성숙(성장)은 결코 단순한 이성적 교육이 아니며 이것은 또한 행운의 토끼발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드럽게 되는 크리스찬 마음에 숨겨진 정적인 영의 표시도 아니다. (성령이 신자내에서 신앙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성이 이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때) 기독인은 그의 능력을 행사함을 통해 확신을 가진다. 성령은 확신을 형성하기 위해 이성을 통해 역사하나 이성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핵심(essence)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ichard sibbes는 때로 어떤 사랑이 이성을 수단으로 배우고, 때로는 직접적인 두려움을 수단으로 배울 때, 그것이 확신임을 상기토록 한다.; “성령은 항상 성화문제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의 상황을 증거하지 않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현존방식으로 증거한다; 그것은 대화없이 위로하는 친구의 모습이다”⁴³⁾

4. 확신

퓨리턴들은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병폐에 대해 하나의 처방을 제시했다. Thomas Brooks는 “믿음에 의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첨경이다”라고 말한다. 퓨리턴인의 비평가들은 어떻게 “오직 믿음”이 행

⁴⁰⁾Owen, Works 6.54.

⁴¹⁾Richard Baxter, “The Saints’ Everlasting Rest,” in The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Grand Rapids: Baker, 1981)48.

⁴²⁾Goodwin, Works 8, 384.

⁴³⁾Sibbes, Works 5, 440.

⁴⁴⁾Brooks, Heaven, 316.

⁴⁵⁾Goodwin, Works 7, 144.

위에 관한 강조를 두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행위를 논하는 대신에 퓨리턴들은 행위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기를 시도하는 데 그것은 감사와 의존이라는 행위이다.

Brook는 기독인의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퓨리턴 정의를 잘 요약한다: “기독인의 삶은 life(vita)라기보다는 여행(vita)이며 life(삶)이라기보다는 삶을 향한 단계(step)이다.”⁴⁶⁾ “기독인이 의로운 행동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주의 본질에 기초한다”고 Sibbes는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사역하고, 항상 일하는 순수행동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 수록 그것은 더욱더 실제적이며 불안에서 더 자유하게 된다.⁴⁷⁾

퓨리턴인들의 순례신학은 고요하게 된 교회를 뒤흔들게 고안되었다. 그들은 자기기만, 의심을 위한 치료를 제공했고, 생생한 복음적 순종을 추구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중생했거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의 연약함과, 진실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느낄 때 만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순환적 순종과, 평가의 한부분으로서 퓨리턴인들은 그들이 믿음의 행위의 반성이라 부르는 것을 통하여 자기성찰을 촉구했다. 이것으로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인간의 자아의식과 마찬가지며, 현대독자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자기—지식(self-knowledge)이다.

대조적으로 반성(reflex)은 반성적(reflective)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일과 목적, 성령원리의 맥락 하에서의 열망에 대한 이성적인 자기성찰의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William Ames;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망명자로서 그의 대부분의 삶을 보낸 사람인데, 그는 그것이 내재화된 것처럼, 그 자신 속에 인지된 것처럼 그가 능력(힘)을 지님으로 인간에게 적절한 반성행동으로서 묘사한다.⁴⁸⁾

Ames는 말하기를 ‘확신이란, 계시의 인지(개념)와 연결된 중생한 자기 관찰로부터 오는 단순한 논리적 결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실성은 믿음과 회개를 느끼도록 이끌고 거기서 깃없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진다.⁴⁹⁾ 믿음의 성찰행위는 신자가 그의 삶의 행위에 있어 육으로

⁴⁶⁾Brooks, Heaven, 12.

⁴⁷⁾Sibbes, Works 1, 139.

⁴⁸⁾William Ames, Conscience with the Power and Cases Thereof(London, 1639) bk. 2, p. 3.

⁴⁹⁾William Ames, The Marrow of Theology(1629, repr. Boston : Pilgrim, 1968)1 30.16.

살아갈 때, 그의 신앙의 자발적(initial) 행동을 볼 수 있게 함으로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영혼은 John Flavel이 관찰하기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직접적 행동을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그 행동을 판단하고 분별하게도 한다.”⁵⁰⁾

퓨리언 설교가인 Richard Fauclough는 행위와 성찰을 통해 확신을 확립하고 점진적인 사이클에서 성경은 계속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성령은 그들이 깨달음으로 영혼이 믿음의 행위의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들 대상(object)을 계시한다; 성령은 즉각적으로 人間의 마음을 도운다”⁵¹⁾

크리스찬이 확신을 가지도록 가능케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본성적 경향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일과 관련된 어떤 것을 지닐 수 있는가? 아니다. Walter Maishall은 ‘확신은 근본적으로 그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표현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익이 그리스도인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는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전전한 기초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은혜상태에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성찰행위라고 부른다.⁵²⁾

John Owen이 쓰기를 참으로 인간성찰은 마음의 확신 상태인 것은 아님을 말한다. 그것은 autopistic한 은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 은혜안에서, 믿음과 의를 얻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지는 그와 같은 도장과 인은 어떤 성찰행위나 은혜 그 자체에 관한 실제적인 주시(contemplation)없이는 될 수 있다.”⁵³⁾

멋을 통해 신자들에게 확신을 제공하여 그 자신의 성찰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찰로 크리스찬이 그의 행동을 평가하는 어떤 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퓨리언에게 있어 확신의 역동적인 순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이다. John Preston은 말하기를 “그는 직선규칙(straight rule)로 진행되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오른쪽 끝(right end)은

⁵⁰⁾Flavel, *The Method of Grace*, 330.

⁵¹⁾Richard Fairclough, “The Nature...of a True Believer’s Attaining to a Certain Knowledge”, in *Puritan Sermons 1659-1689*(Wheaton, IL : Richard Owen Roberts 1981)6, 404.

⁵²⁾Marshall, *Sanctification*, 130.

⁵³⁾Owen, *Works* 11.83.

결코 그것을 인도하는 굽은 규칙을 지질수 없기 때문이다.”⁵⁴⁾

성찰행위는 완전한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내적증거를 성경의 무오한 계시와 결합시킨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노력으로, 노력에서 다시 성경적 평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 선화한다. 퓨리언 신학에 있어 확신의 구조에 관한 완전한 연구는 하나님과 人間사이의 문어적인 의사소통인 확실성의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목적은 단지 확신에 관한 퓨리언인의 역동적 모델이 어떻게 신앙과 행위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비록 퓨리언들이 생동적이고, 실험적인 믿음을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그같은 전파의 위험에 갇혀있지 않았다. 퓨리언들은 그 자신의 선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는 선행을 보는 경험에 의존한다; Brooks는 말하기를 “이제 확신은 성찰행위이며, 예민한 느낌이며, 은혜상태에 있는 人間존재의 경험적 관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신속에서 특별하고, 특수하고, 뚜렷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것으로부터 나온다”⁵⁵⁾ Brooks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깨달을 때 그것들은 확신의 수단이다; 당신은 당신의 지각과 감정이 당신의 조건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판단한다고 확신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나 당신의 지각과 느낌이 신이 되게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적 믿음에 대항한 퓨리언 조직의 하나님의 안정장치는 확신의 확립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위한 적절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대신에 신자는 그가 은혜로운 순종을 향해 더욱 움직일 때만이 추구해지는 것이다.

Owen은 말하기를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길에 밀착하게 한다.”⁵⁷⁾ 신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에 자신감이 있으면 어느정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확신인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가장 Preposterous course이다. 당신은 이 질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Owen은 말한다. 그 질서는 사랑이 여기있으니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다.⁵⁸⁾ 신자는 그 자신 속에 있는 확신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잔다.

⁵⁴⁾Preston, *Covenant*, 232.

⁵⁵⁾Brooks, *Heaven*, 14.

⁵⁶⁾Ibid., 104.

⁵⁷⁾Owen, *Works* 11, 481.

⁵⁸⁾Ibid. 2 : 37.

퓨리턴인들의 모델에 의하면, 정상적인 나선형 성장은 주관주의와 경건주의의 실수와 행위를 신뢰하는 것과 크리스찬삶의 자기의존성의 실수를 피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몸의 한지체로서 그 성장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지, 소망없는 circle을 존재케하는 노력과 평가를 계속하는 크리스찬내에 있는 어떤 절대적 성장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의 반성 행위에 의해 어떤 확신을 얻는다면, 그들은 곧 다시 유혹으로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Marchall은 살피고 있다.

이러한 악을 피하는 길은, 믿음이란 직접적 행위로, 주의 이름을 확신있게 신뢰함으로 당신의 확신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⁵⁹⁾ 또다르게 Marchall은 나선형 확신의 축으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지녀야 할 필요를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치하는 곳에서 절서에 따라, 심령과 생활의 거룩을 추구하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참의 성령의 선물을 추구하시오”⁶⁰⁾

정적인 믿음은 신자에게 어떤 생명도 줄 수 없듯이 직접적인 신앙 없이는 어떤 생동적 삶도 그 자신의 꼬리를 뒤쫓는 어리석은 것이다. 단지 적절한 절서에서의 믿음과 행위 만이 생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을 가져다 주는 성장과 학습으로 이끌 수 있다. Richard Fairclough는 확신에 있어 믿음과 행위의 결합에 관한 aphorism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인식의 믿음과, 확신의 믿음사이의 동일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학습 사이의 동일한 차이가 있듯이 적절한 열매에 의해, 적당한 목적에서 잘 행사된 믿음이 확신을 야기시킨다⁶¹⁾

확신의 사역은 계속되는 실행이나, cycle이나 그것이 신자가 스스로를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cycle이다. John Ball은 그의 신조로 유명한 것이 사랑인데, 확신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의 모든 은혜는 순환적으로 서로서로 운영되며 움직이며 그리고 강화시킨다.”⁶²⁾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사역할 힘을 줄때 그는 그에게 또한 그를 더 많이 사역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사역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은혜는 신자에게로 무차별하게 부어지는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신자의 현재 믿음에 적절하게 온다.

Richard Baxter는 주장하기를, ‘은혜는 비례적으로 함께 성장해야만 한다.’⁶³⁾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에게 알려진 나선형 확신으로 신자가 그

⁵⁹⁾Marshall, *Sanctification*, 133.

⁶⁰⁾Ibid., 96.

⁶¹⁾Fairclough, “Certain Knowledge”, 374.

⁶²⁾John Ball, *The Power of Godliness*(London : Simeon Ashe, 1657)30.

⁶³⁾Richard Baxter, “The Character of a Sound, Confirmed Christian”, in *The*

자신을 하나님께로 질서적으로 이끌도록 하며 신앙적인 순종을 하게 한다. John Preston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단지 설득시키는 것이며 나는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 한다’⁶⁴⁾고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 中心의 이러한 위치인 적극적인 강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위한 적절한 동기며 목적을 제공한다’고 Owen은 말한다.

신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향을 받고, loadstone에 접촉된 바늘과 같다. 그것은 그를 향한 계속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⁶⁵⁾ 퓨리턴 신학에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의 구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내적 방향과 외적 수단을 제공함으로 행위와 성찰의 창조로 사역한다.

퓨리턴 논리는 신앙의 안식과 신앙의 순종 사이에 어떤 갈등도 발견치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선민의 삶에 있어 그리스도의 부요를 유효케 하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의 각 행위는 그가 그 자신을 앓에 의한 대상(object)을 제공하고, 각각의 행위는 그가 구세주를 아는 증거를 제공한다. 신뢰, 순종, 평가, 배움의 나선형 과정에 의해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자발적 approbation으로부터 모든 신자의 삶과 의식의 양상을 다 포괄하는 완전한 안식의 확신 2가지로 이끈다.

모든 신자의 능력은 이 과정의 도구나 그들은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보물로부터 흘러나며 그것은 무오한 성경이고, 그들에 대한 그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이다. 그것은 recalcitrant죄인을 유순한 아이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다.

확신에 관련된 신학적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무한하고 불변이며 완전한 하나님을 시공간에서 변화무쌍하며 유한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그의 선민에게 그의 불변하는 구원의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人間의 믿음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신자는 그의 거칠고 혼들리는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가? 퓨리턴 신학은 그들의 계약신학원리 섭리, 예정, 율법, 그리스도와의 결합, 견인, 양심, 성심과 확신을 포함하는 딥을 제시한다.

퓨리턴 신학에 있어서 확신을 조사하면서 나온 즉 나선형의 확신본질이란 그들의 신학을 통해 내가 추적하기를 바란 논리적, 실 하나를 집어내려고 시도해 왔다. 신자와 하나님께 대한 나선형 관계의 본질은 어떻게 퓨리턴인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Grand Rapids : Baker, 1981)717.

⁶⁴⁾John Preston, “Of Effectual Faith”, in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London, 1634)82.

⁶⁵⁾Owen, *Works* 1,385.

들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수동적 경향과, 크리스챤 삶의 역동적 순종을 위한 필요성 사이에서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퓨리턴의 해결은 특히 이것이 어떻게 자기성찰적인 순종의 본질이 도출되며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믿음으로 인도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존재로서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人間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하는 것은 무엇이며 초자연적인 역사, 신자의 성화에 사용되는 자연적 도구는 무엇인가?

신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정되고 완전한 구원을 포함하며 날마다의 순종,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에 대한, 그리고 그의 무한한 선함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에 더 가까이 따르게 함으로써 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하는 평가도 포함한다. 이리하여 신자는 영원에서부터 그의 구원의 위대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자라간다.

이것은 퓨리턴인의 확신교리의 매우 희망적 소식이다. 자기—의인이나 심지어 자기확신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른 사역에 있는 믿음의 가벼운 명예이다.

서평(Review)

반케머런의 구속의 진전 :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이야기(Grand Rapids : Academie, 1988, pp 1-544) 책소개

서평 : 박종칠 교수

서평보다는 “책소개”라고 표제를 부침은 일반적 서평기준에서 보다 학생들을 위해 책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어서이다. 현재 미국 Jackson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반 케머런의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은 계할더 보스의 성경신학—반 케머런 자신이 이 책에서 많은 신세를 입은 것을 인정하지만(p. 15)—이 나온 이후 괄목한 작품으로 보아진다.

구약학자들이 구약 계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시적으로 (diachronically) 하다보면 어느 한 시기의 단면만 보게되는 단편화 되는 결과를 반 케머런 교수는 지양하고 성경 역사 속에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공시적으로 (synchronously) 관찰하며 현재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다하여 그가 계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책명 구속진전이 의미하듯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병합하여 성경 계시 내용의 통일성과 진전 내지 문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역사에 깨뚫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합하는 사역 (God's great unifying work in history)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열심이 구약학자인 그로 하여금 신약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심지어 교회사에서 까지도 그 일관된 하나님의 사역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의 여러 시대를 조직적으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 조건을 요구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가 교회사에까지 뛰어들어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을 찾으려 함은 흔히 요즈음 주장하는 “계속하는 계시” (continuing revelation)가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계속하는 구원 역사” (continuing history of salvation)가 있다는 확신에서일 것